
유럽, UHF 대역 소출력 및 RFID 기기 주파수 확대

2014.04.30.

□ 개요

- 유럽은 소출력 용도로 이미 할당된 863-870MHz 대역이 UHF RFID 및 스마트 그리드 등 소출력기기 이용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, 870-876MHz 및 915-921MHz 대역을 추가 할당하여 총 19MHz 대역을 소출력 및 RFID 용도로 추가 지정함

□ 주요내용,

- 유럽의 소출력·RFID 기기 추가 주파수 대역은 870-876MHz, 915-921MHz임. 북미 지역에서는 동 대역이 북미 지역에서 이미 ISM 밴드로 지정되어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개발 및 이용 중에 있으나 유럽에서는 개인 이동 및 공공 전파 시스템(TETRA 등)으로 할당되어 있어 이용량이 매우 적음
- (870-876MHz 대역) ETSI는 동 대역을 소출력 용도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, ECC 주파수 관리 작업반은 25mW 급 소출력기기가 동 대역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함
- (915-952MHz 대역) 동 대역은 무선통신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으나, RFID 기기 및 보청기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
- '14년 2월, 870-876MHz 및 915-921MHz 대역을 소출력 및 RFID 용도로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(ECC 권고 07-03)하고, ETSI는 관련 표준 개정 작업을 진행중(2015년 완료 예상)

□ 향후전망

- 우리나라는 915-921MHz 대역은 RFID 용도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나, 870-876MHz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지정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